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기독교 단체들, 성·결혼·아동 권리 등 성경을 근거로 교육하기로 서명**



노르웨이의 38개 기독교 단체들이 성별, 결혼, 아동의 권리에 대해 성경적 가치관과 과학을 근거로 교육하기로 했다고 에반젤리칼 포커스가 21일 전했다. 노르웨이에서 신학적으로 자유로운 노르웨이 루터교회(덴 노르스케 키르케(Den Norske Kirke))가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엘지비티(LGBTQI) 신학과 성적 다양성 정책을 받아들여, 역대 정부가 추진한 법률을 따르고 있다.

반면, 결혼과 성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고수하는 기독교 단체들(오퍼레이션 모빌리제이션, 학생운동 라켓, 노르웨이 루터교회 선교단체 포함)은 교회 단체들과 함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생물학적 현실을 인정하며,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선언했다.

노르웨이의 연합 기독교 단체인 ‘펠레스크리스텐(felleskristen)’이 선언한 ‘성별과 성 다양성에 대한 공동 기독교 선언’ 문서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결혼은 자연법에 새겨진 신성한 제도”로서 “남성과 여성을 결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결합을 벗어난 성적인 관계는 “성경의 창조 신학과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과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물학적 성별은 단 두 가지뿐”이며, “이는 수정될 때에 이미 확인할 수 있다”며 “성별은 주관적인 범주이고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감정이나 선호에 따라 성적 정체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개념은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것이며, 생물학적 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독교 단체들은 어린이에게 “잘못된 몸으로 태어났다”거나 “성별은 유동적”이라는 가르침은 “혼란, 불안, 파괴적인 삶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단체들과 교회들은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엡 4:15)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이성적이고 친절하게 대하고자 한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적 압력이나 사회적 흐름과 충돌하더라도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시민들과 단체들에 ‘퀴어 이론’의 성별, 성적 정체성, 결혼 개념을 강요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르웨이 평등부(Ministry of Equality) 장관인 루브나 자페리(Lubna Jaffery)는 이 선언문의 일부 내용이 ‘추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퀴어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조직에서 특별히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에베소서 4:14-15)**

하나님, 동성애와 성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법률에 타협한 대다수 노르웨이 교회 가운데 진리를 수호하는 믿음의 증인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적 가르침을 추잡하다 말하며 복음을 대적하는 이 땅의 영혼들을 꾸짖으사 겸손히 창조주 앞에 서는 은혜를 주소서. 이 땅을 잠식시킬 온갖 거짓된 교훈의 풍조가 날로 간사해져 가지만, 교회를 복음으로 세우사 요동치 않고 진리를 선포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가정과 다음세대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 거룩한 예수교회로 일어나게 하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악화...이슬람 폭력 진원지, 중동→아프리카

지난해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차별, 인권침해가 악화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23일 전했다. 기독교 자선단체 '에이드 투 더 처치 인 니드(ACN)'의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무장 이슬람 폭력의 진원지가 중동에서 아프리카로 이동했으며, 부르키나파소, 나이지리아, 모잠비크와 같은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으로 인해 극단적 폭력에 노출됐다. 이들 국가에서는 기독교인을 적으로 간주해 납치, 성폭력, 강제결혼·개종 등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독교인을 투옥하거나 법률을 무기화 해 탄압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특히 에리트레아에서는 약 400명의 기독교인이 재판 없이 투옥됐으며, 이란에서는 2021년 59명이었던 수감자가 2023년 166명으로 증가했다. 중국에서는 수감된 기독교인 수가 약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인도에서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 및 기타 박해 사례가 2022년 599건에서 2023년 720건으로 늘어났다.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는 너희의 자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리라(유다서 1:20-21)**

하나님, 전 세계에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더욱 악화되어 가는 상황에 지금도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자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실감하는 이때 몸 된 교회가 더욱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여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상과 우상숭배로 심령을 어지럽히며 영혼들을 혼미케 하는 사탄의 악한 권세를 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열방을 회복시켜 주소서.

### ▲ 미국 미시시피 박람회, 침례교 봉사자들 상담으로 373명 그리스도 영접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침례교 자원봉사자들이 수천 명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그 결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6일 전했다. 이번 달 초 열린 미시시피 주 박람회에는 미시시피 침례교 연합회(MBCB) 소속의 200명 가까운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으며 박람회에서 총 2,824건의 복음 대화가 이루어졌고, 그중 373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 사역은 2021년부터 매년 박람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시시피 침례교 연합회 대변인 린다 버리스는 매년 비슷한 수의 복음 대화가 이루어지며,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박람회에서 복음을 전한 자원봉사자들은 새 신자에게 복음 전단지과 제자훈련 안내서를 제공하고, 각 지역 교회와 연결하여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여러 지역에서도 대규모 복음 전도와 세례식이 열려 많은 이들이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사도행전 16:30-31)**

하나님,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열린 박람회를 통해 수백 명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해를 더할수록 새 신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함께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이 평생에 부를 예배와 찬양이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을 이길 믿음의 자양분이 되게 하옵소서. 미시시피에서 일어난 이 기쁜 소식이 미국 전역에 전파되어 수많은 죄악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 주소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50년만의 최악 홍수 최소 95명 사망...1년치 비 8시간 동안 내려**



스페인에서 50년만에 발생한 최악의 홍수로 최소 9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CNN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스페인 중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발렌시아주로 이곳에서만 9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중 최소 40명이 발렌시아주 파이포르타 마을에서 사망했다.

이 외에 발렌시아 인근의 카스티야 라만차주와 안달루시아주에서는 각각 2명, 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양헬 빅토르 토레스 영토정책부 장관은 “아직 실종자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철도와 항공 교통망에도 심각한 지장이 발생해 발렌시아와 마드리드를 오가는 고속철도는 최소 나흘간 중단될 전망이다. AFP 통신은 지중해 연안도시 세다비에서 차량이 쌓여 있고 거리가 진흙으로 뒤덮여 있는 모습을 전했다. 주민들은 물과 전기가 끊긴 밤에 집안에서 양동이로 물을 퍼내고 진흙탕을 청소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발렌시아주에서는 이날 200차례의 육상 구조 작업과 70번의 항공 구조 작업이 진행됐다.

카를로스 마손 발렌시아주 총리는 “통신망 훼손과 도로 침수로 인해 발렌시아주의 피해 지역에 대한 접근이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30일 저녁에는 대부분 도심 지역에 대한 구조대 접근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부 장관도 이번 홍수를 “전례가 없는 현상”이라고 불렀고 “구조 작업을 돕기 위해 헬기와 병력 1,000명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도 스페인의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에너지 기업인 이베드롤라는 홍수로 인해 발렌시아에서 약 15만 5,000가구가 전력이 끊긴 상태로 직원 500명을 파견해 전력 복구에 나섰다. 스페인 정부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사흘간의 국가예도기간을 선포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피해 유족들을 향해 “모든 스페인이 함께 통곡하고 있다”며 “우리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난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비극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수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는 전례 없는 기록적 폭우가 꼽힌다. 발렌시아 치바 마을에서는 29일 8시간 동안 무려 491mm의 비가 내렸다. 이는 1년 전체 강우량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양이다. 홍수의 원인이 된 차가운 공기가 지중해의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생긴 폭풍이 비구름을 형성하는 ‘고고도 저기압’이 기후변화로 인해 더 극심해졌고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출처: 뉴스1 종합).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사편 29:10-11)**

하나님, 50년 만에 내린 최악의 홍수로 인해 도로 곳곳이 침수되며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스페인을 다스려 주시고 실종자들을 속히 구출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막아설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난 앞에 영혼들이 홍수 때에 좌정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주를 향한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소서. 그리하여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더하시는 주와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스페인 되게 하옵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 러, 소련 시절 '생물무기' 연구 시설 대규모 증축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 생물무기 개발로 악명 높았던 시설을 대규모로 증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워싱턴포스트를 인용해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부터 모스크바 인근 군사제한구역 내에 있는 '세르기에프 포스트-6'이라 불리는 시설에서 기존 건물 개보수와 함께 10개의 건물을 추가로 짓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방 정보 당국자들은 해당 시설이 냉전 시기 천연두, 페스트, 에볼라 바이러스 등 치명적인 전염병의 무기화를 연구하던 곳이라는 점에서 수십 년간 조용하던 이 시설을 증축하는 건 러시아가 생물무기 연구를 재개할 움직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상업위성업체 맥사와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최근 2년간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새 건물 일부는 고위험 병원체를 다루는 생물안전도 최고등급(BSL-4) 연구 시설로 추정된다. 이 시설은 공기압 제어·여과 시설을 갖추고 실험실과 이외 공간을 철저히 분리해 과학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한다.

**내 아들이 네 아버지의 혼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앉았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 같이 그들을 산 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잠언 1:8,11-12)**

하나님, 인간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을 무기화하기 위하여 연구하던 악명 높은 옛 생물무기 시설을 대규모로 증축 중이라는 끔찍한 소식에 주의 다스리심을 구합니다. 생물무기를 이용해 까닭 없이 피를 흘리고 사람을 산 채로 삼켜 무덤에 내려가는 러시아의 악한 도모를 파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을 꾸짖으사 엄위하신 주의 공의 앞에 세워주소서. 주여, 지금도 전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혼계와 법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구원의 인치심을 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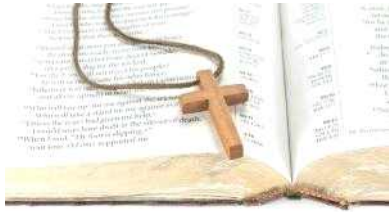
### ▲ 민주콩고, 인구 25% 기아 심각

콩고민주공화국(이하 민주콩고) 인구의 약 4분의 1이 계속해서 심각한 기아에 직면해 있다고 유엔인권사이트 릴리프웹이 28일 전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FAO)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분석 대상 인구의 22%인 약 2560만 명이 최신 통합 식량 안보 단계 분류(IPC) 중 심각한 급성 식량 불안정(IPC 3단계 이상)을 겪었다. 여기에는 심각한 수준의 식량 불안(IPC 4단계)에 직면한 약 310만 명이 포함됐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효과적인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2025년 초의 전망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비상 및 회복력 사무소 책임자인 라인 폴센은 “민주콩고의 수백만 명에게 식량 안보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적대 행위를 종식하고 지역 식량 생산을 회복하며 농촌 가정의 회복력 구축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시편 37:18-20)**

하나님, 오랜 내전과 정치적 불안정, 자연재해 등으로 좀처럼 심각한 수준의 기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민주콩고를 돌봐주소시오. 이런 나라의 위기 가운데에도 생존을 위해 서로를 도우며 연합하기보다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적대 행위를 일삼는 여러 무장단체와 정부군을 꾸짖어 주소서. 주님이 민주콩고의 영원한 기업 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땅을 도우사 재난과 기근의 날에도 풍족한 것을 공급하시는 천지의 도움이 되시는 주를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호와를 피난처 삼은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호주 기독교, 십자가 목걸이 착용 금지 ‘논란’**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한 기독교학교가 학생들에게 십자가 목걸이 착용을 금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882년 웨슬리 감리교회가 설립한 기독교 여학교 ‘메소디스트 레이디스 칼리지(Methodist Ladies’ College)’의 교사는 최근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한 학생에게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목걸이를 뺄 것을 요청했다.

익명의 한 학생은 “친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우리 반에 다른 여학생이 십자가를 불쾌하게 생각한다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빼라고 말했다”며 “친구의 부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학교 측은 ‘우리 학교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생은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이지만 주류 종교를 가진 학생보다는 소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멜버른침례교회 목사인 머레이 캠벨은 “학교가 포용성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을 소외시켰다. 기독교 학교에서 십자가 착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비난했다.

역사 강사이자 작가인 스티븐 차부리는 호주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괴롭힘에 깨어 맞서 싸우는 소녀들을 칭찬하고 싶다”며 학생들을 향해 “십자가를 달고 다녀라. 학교에 올 때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상징물을 착용함으로써 다른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학교 전체에 이곳은 기독교 학교이며 마르크스주의적 각성 학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내라”고 격려했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일부 학생들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뺄 것을 요청했지만, 다른 학생들이 무지개 테마의 악세사리를 착용한 것은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혹에 대해 줄리아 셰어 교장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보석을 금지하는 일관된 복장 규정을 적용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 정책은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종교나 개인의 신념과 관련이 없다. 모든 학생이 동일한 표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다양한 커뮤니티 내 단결을 촉진한다”고 해명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6-7)**

하나님, 기독교 학교에서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장신구는 허용하면서도 십자가 목걸이는 불쾌감을 줄 수 있다며 착용을 금지한 모순적인 호주의 소식에 탄식하며 나아갑니다. 안락사, 동성결혼 합법화 등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으로 진노의 죄를 쌓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호주 교회가 깨어 기도로 싸우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안에 믿음을 견고케 하소서.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예수교회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 중국 정부, 베이징 시온교회 급습...12명 체포

지난달 20일 중국 정부가 10월 20일에 베이징 시온교회의 여러 예배 장소를 급습해 12명을 체포했다고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이 지난 30일 전했다. 당국은 베이징에 있는 4곳의 예배 장소를 급습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기록했다. 이후 12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친귀량 장로는 14일간 구금 처분을 받았다. 당국은 2018년 4월에 베이징 시온교회가 건물 내부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당국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회 활동을 금지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 교회는 베이징 곳곳에서 예배와 성경 공부 모임을 계속해오고 있다. 베이징의 수많은 개신교 교회들은 시진핑 주석 정부와 공산당 당국이 지하 또는 미등록 교회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반발하고 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디모데후서 2:8-9)**

하나님, 교회를 끊임없이 공산화하고 감시하려는 중국 당국의 요구에 불응한 대가 지불이 교회에 대한 박해로 점점 거세지고 있음을 돌아보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에 매이지 않는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를 위한 박해가 이들에게 더할수록 이 땅에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힘을 얻게 하소서. 복음에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 중국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게 하옵소서.

### ▲ WHO, “지난해 결핵 신규 확진 8,200만 명”

지난해 약 8,200만 명이 결핵(TB) 신규 확진을 받았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29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는 1995년 WHO가 결핵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래 최고 수치로, 결핵이 다시 한번 코로나19를 제치고 2023년 가장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자리 잡았다. 2023년 결핵 관련 사망자는 125만 명으로 줄었지만, 전체 결핵 환자 수는 약 1,080만 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결핵은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을 포함한 30개국에서 특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결핵 환자가 많아 이 질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경제적 부담이 크다. 한편, 보고서는 자금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고 전했다. 2023년 결핵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220억 달러 중 57억 달러(목표의 26%)만 확보됐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시편 73:26,28)**

하나님, 전 세계를 충격과 죽음의 공포에 빠지게 했던 코로나19를 제치고 가장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최고의 수치를 보이는 결핵 환자와 위기를 맞은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특별히 결핵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30개국을 주께 의탁하오니 육체와 마음이 쇠약한 이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계시하여 주사 반석 되신 주를 피난처로 삼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복을 이들에게 더하사 영원한 분깃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부로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을 자랑케 하소서.